



[산업]
현대·기아차
신기술 미디어 설명회
CVVD기술 세계 첫 적용
08

[라이프]
BTS서 찾는
프랜차이즈
성공 전략
L2



창동·상계 기반 부족… ‘바이오 클러스터’ 입지 재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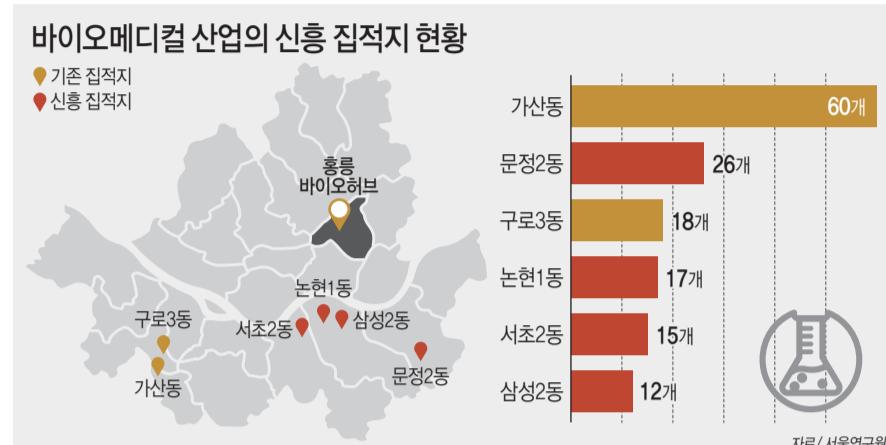
서울시 산업별 클러스터 시너지는?

산업 집적지 동반성장 효과 있어
홍릉 바이오허브 연계 재조정 필요
창동·상계 역량 부족·접근성 ↓
창업 활발한 G밸리·강남 연결해야

바이오메디컬 산업 관계자 10명 중 7명이 제약·의료 산업 집적지의 동반성장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홍릉 바이오허브를 창동·상계 일대와 연계해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제약·의료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집적지 조건을 갖춘 행정동으로 위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시 소재 법인 창업 사업체 대표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산업별 집적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창업지원 정책에 있어 산업별 집적지를 고려하는 게 어느 정



도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내 법인 789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3%가 ‘집적지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 집적지란 특정 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과 유관산업, 대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중된 현상을 말한다. 유사 기업의 기술·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적인 경쟁·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적지에 위치한 법인이 비집적지에 있는 법인보다 동반상승 효과를 더 크

게 느꼈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집적지에서 64.9%로, 비집적지에서 38.1%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경우 집적지에서는 70.2%가 ‘동반상승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비집적지에서는 19.2%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했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업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별 집적지와 비집적지를 파악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집적지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해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인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집적지 조건을 갖춘 행정동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 분포와 정책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보건업의 3개 세부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신흥 집적지 현황’을 보면 가산동이 60개로 가장 많았고, 문정2동(26개), 구로3동(18개), 논현1동(17개), 서초2동(15개), 삼성2동(12개)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G밸리 일대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세 지역으로 의료기기 제조에서도 높은 창업 활력을 나타냈다”며 “G밸리는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산업 집적을 강화하고 있고 강남 지역 일대는 최근 들어 창업이 활발해지는 양상이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문정 2동은 최근 지식산업 센터로의 입주가 활발해지면서 첨단제조업에 해당하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법인 창업도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홍릉과 창동·상계 일대를 바이오첨단연구산업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달호 연구위원은 “홍릉은 고려대, 경희대 등 인근 대학병원과 연계해 바이오의료 테스트베드를 육성해 나간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홍릉동은 고려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등 풍부한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존재는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 창업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실험을 하거나 장비를 검사할 때 테스트베드로 병원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창동과 상계 지역은 바이오 관련 산업 기반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 역량도 미흡하게 나타나고, 홍릉과의 접근성도 떨어진다”며 “창동·상계를 홍릉과 연계한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영화 ‘아쿠아맨’ 시각효과 제작사 서울에 등지

할리우드 시각효과 제작사 ‘스캔라인’ 서울 상암동에 글로벌 스튜디오 개소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아쿠아맨’의 시각효과 제작에 참여한 업체 ‘스캔라인 VFX(Scanline VFX)’가 서울 상암동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상암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 아시아·최초로 ‘스캔라인’의 글로벌 스튜디오를 개소한다고 3일 밝혔다.

1989년 설립된 스캔라인은 영화의 시각효과를 제작하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독일 뮌헨, 슈투트가르트, 미국 LA,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에 스튜디오를 두고 있다. 매년 15편 이상의 할리우드 영화 시각효과를 제작하고 있다.

스캔라인 서울 스튜디오는 해외 스튜디오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할리우드 영화를 본격적으로 제작해나갈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스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열린 스캔라인VFX코리아 글로벌 스튜디오 개관식에서 스테판 트로안스키(오른쪽 다섯번째) 스캔라인 대표이사, 조인동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장상현 코트라 IK대표 등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 컷팅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 연구개발 인력 육성, 국내 영상 관련 학과 대학생 트레이닝 등을 담당한다.

스캔라인VFX 서울 스튜디오는 해외 스튜디오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할리우드 영화를 본격적으로 제작해나갈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스캔

라인의 서울 진출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 서울시, 그리고 코트라가 함께 협업으로 이룬 것”이라며 “앞으로 시는 스캔라인과 같은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률 84%

신청자 지난 1분기보다 2556명 많아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2019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 1분기 12만4335명보다 2556명 많은 12만6891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분기부터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된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 청년 신청자 7,013명이 포함된 수치로 올해

2분기에 만 24세가 된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전체 청년 15만622명의 84.24%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는 이번 2분기부터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을 충족하는 청년도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전체 대상자와 실제 신청자에 대한 신청률 집계가 가능했던 1분기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때문에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2분기부터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도는 오는 14일까지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 25만 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등)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5489억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추경예산 436억 투입해 31km정비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올해 5489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비 3962억원과 비교해 1527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추경예산 436억원을 신속히 투입해 하수관로 31km를 정비할 계획이다.

편성된 예산은 ▲노후관로 및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139억원) 23건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 정비(5억원) 4건 ▲하수 박스 보수보강(292억원) 26건 등에 쓰인다.

시는 이달부터 추경 예산을 본격 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하수도 분야 전문 감리 제도’에 60억원을 투입한다. 인력이 부족해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자치구의 소규모 하수관로 사업과 비관리청(타기관) 하수도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이정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분야에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예산투입으로 도로함돌, 침수피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악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공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켜 하수도 관련 안전사고와 생활불편 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황해청, 佛기업 찾아 투자유치전

‘한불 기술협력 세미나’서 투자설명회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한불 기술협력 세미나’에서 한국진출 프랑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파비앙 폐넌 주한프랑스 대사,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중소기업 디지털경제부 장관, 김경록 ‘슈나이더 일렉트릭’(스마트팩토리) 지사장, 패트릭 드프라누 ‘탈레스 코리아’(군수업체) 대표, 스태판 폐레이아 ‘아케마’(첨단화학소재) 대표 등 프랑스 기업 대

표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불 기술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과 국제 기술협력의 경제특구로서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회로 진행됐다.

황해청 황성태 청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가 20년 전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해 현재 IT, BT 등 1,300여개 기업이 79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황해 청도 국제 기술협력을 위한 경제특구로서, 평택, 시흥, 김포 등을 아우르는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로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김승열 기자